



##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14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달 6월항쟁을 기념해 트위터(@iminju)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이란 주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보내주신 생각을 <희망세상>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mega\_toy**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오픈소스

시작은 오류투성이지만 수많은 이들에 의해 재분석되고 업그레이드 되는것, 완벽한 완성은 없지만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eyunjung**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피와 땀의 대가

세상에 공짜 자유와 공짜 행복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름을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soulforsoul**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도미노 게임] 이다.

도미노에서 한 개의 조각은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그리고 조각은 쓰러지며 옆의 조각을 일깨워주게 됩니다.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멋진 그림을 완성시킬 조각 조각들이 자기 몫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일깨워주며 민주주의라는 멋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blackboxmath**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는 것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민주주의 아닐까요?

**@arrstein**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

소수의 사람들이 지식을 독점하여 그것으로 권력을 쌓고 다수를 지배하려 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은 역사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비판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echo1004**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만족이 아닌 다수의 이해”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적은 수를 만족 시키더라도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astrokim94**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소통, 설득, 이해, 공감 그리고 실천이다.

새로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긋지긋한 소통/설득/이해/공감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 민주주의는 ○○○다!

@TAE\_HYUN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소통이다.

소통은 마음을 열고 진정성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heendung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생활이다.

말로만, 입장만 민주적이라고 백날 부르짖어봤자, 정작 가족안에서, 내안에서, 관계에서 보수성을 떨치지 못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힘으로 누르는데 익숙하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또하나의 세련된 파시즘이다.

---

@backofnw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바람이다.

때로는 컷가를 스쳐가는 미풍처럼, 때로는 민중의 열망을 담은 거대한 태풍처럼 우리네 삶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바람이기에...

---

@Young\_news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짬뽕곰배기이다.

민주주의는 획일과 독재가 아니고, 개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면서, 여러 생각/입장/관점이 어우러지기에, 금방 먹고도 또 먹고 싶은 짬뽕인 것이다. 것두 곰배기!!!

---

@oddno2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대화이다.

대화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다르기때문에 서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이해시키고 함께 가기위한 것이 대화지요. 민주주의는 대화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

@corea\_com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68억가지의 꿈이다.

전세계 68억명의 개개인이 모두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고, 그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 아닐까요? ^^

---

@bmgckkc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참여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

@mongsuel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세상에 대해 게으르지않으려는 마음

게으름은 관심없음에서 생겨나고, 관심없음은 그것에 진정성이없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진정성은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가장 순수한 힘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때문에...

---

@MIR\_DANIEL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국민

어떤 정당도 다수결로는 국민의 의견이라 할 수 없다. 어떤 권력자의 권력도 결단코 국민이 없으면 권력은 남용되는 것이고, 횡포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는 헌법제 1조1항에 명시된 것 바로 그것이다.

---



**@dannylim0714**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바람이다.

바람은 때와 장소, 대상의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구에게나 달려간다. 때로는 그 속에 희망의 씨앗을 담아 전 달하기도 한다.

**@331design**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침운동이다.

힘들고, 귀찮아서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하고나면 좋다. 계속하면 익숙해지고, 건강해지지만 멈추면 금방 이 전만 못해진다. 혼자하면 외롭지만 같이하면 재미있고, 여럿이하면 힘이 난다. 기본기가 중요하며, 실천하는 방법은 취향에 따라 다양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누구도 대신해 줄 순 없다.

**@leechanglim**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를 규정하는 많은 것들을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소수의 권력자들로부터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현실.

**@xiuen2**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참여와 책임..

참여하지 않으며 비난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키지 않을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 만큼이나요.. 적극적인 참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것..곧 오겠죠?

**@thehyan**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도자기 빛는 진흙이다.

물레 위에 올려놓고 한눈을 팔면 망쳐버린다. 하지만 심혈을 기울여 다듬으면 훌륭한 도자기로 빛어진다.

**@wizaaaard**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풀뿌리다.

보이지 않더라도 땅 밑에서 무섭게 뻗어나가는 민(民)의 생명력이다.

**@tiodi**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약국에 없다.

민주제는 돈 주고 쉽게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바보만 돈으로 살라고 한다....

**@stockoops**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별거 아니다.

춧불하나 켜기, 선거투표하기, 트윗하나 날리기, 한번 더 생각하기, 싫어도 들어주기, 달라도 인정하기... 일 어서기! 외치기! 별거 아니죠. 간단한거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akolike**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배운대로 했으면 좋겠다.

초,중,고 수업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duraboys**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고라다.

어떤 권력자의 권력도 결단코 국민이 없으면 권력은 남용되는 것이고, 횡포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으로 모든 권력이 나온다는 헌법제 1조1항에 명시된 것 바로 그것이다.

**@yyyyy3**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네버엔딩이다.

절대 끝이 없는,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무언가에 막혀 멈출 수도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그 참의미가 실현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 화이팅!

---

**@hanjum2**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폭신한 침대같은?^^

민주주의는 편안히 살수 있는 폭신한 침대같아야 할듯 한대 지금의 민주주의는 딱딱한 의자 같아요--; 불편하고 아프고, 당장이라도 누가 시비걸면 의자 던져야 할것 같구 막--;

---

**@irhietintin**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빵과 장미

민주주의는, 모두가 빵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장미도 보장받는 세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아닐까. '우리는 빵 뿐만 아니라 장미도 원한다' 고 외칠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는 세상.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억압받지 않는 세상.

---

**@kihunchoi**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금연”이다.

힘든 고통이 수반되지만, 성공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사회도 건강해진다. 굳어버린 습관과 니코틴의 달콤한 흡연의 유혹은 우리몸을 병들게 하듯이, 기존의 사회에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습관과 달콤한 권력에 물든 기득권은 우리 사회를 병들인다. 모두 금연합시다~

---

**@junit74**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여자친구다.

내 옆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써 허전함을 깨닫는다..

---

**@jppapin1899**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Following 이다.

트위터의 팔로워는 내가 말하는 것(트윗)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들어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

**@honeysuda**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만들어 가는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판을 만들어줬으니 이제 우리가 그 발판을 딛고 민주주의가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부패시키는 공팡이를 제거해야죠^^

---

**@botton77**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붉은 악마다!

혼자서 외치는 대한민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함께 즐겁고 신명나게 참여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로 승리를 외칠 때 의미있는 붉은 악마! 민주주의 역시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다른 목소리로 함께 참여하고 지켜볼 때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kogun0**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설피다.

내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만큼만 다시 돌아온다.

---